

인 사 말

지는 저녁 해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날 저문 하늘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달 빈 길에 뜨면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
저무는 섬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해마다 첫눈으로 내리고
새벽보다 깊은 새벽 섬 기슭에 앉아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 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또 기다리는 편지, 정 호 승〉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다른 겨울에 비해 그리 춥지는 않았지만, 북쪽 지방에서는 예기치 못한 폭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올 겨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고, 그 봄의 첫 머리에 이곳 전주에서 제20회 대한정위기능신경외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해 주신 여러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능적 신경질환이라는 분야는 신경외과학에서는 매우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시고 개척하시며, 앞선 지식을 같이 나누어 주셔서 오늘의 많은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새장을 열어 주신 여러 선배 교수님, 전임 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회원들간의 깊은 유대와 지식의 공유는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에 속한 여러 병원과 회원님들의 치료 방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처럼 전주에 오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직은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시기이지만, 남녘의 정취를 느끼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전주는 오래된 역사의 도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20대 젊은이들이 가장 찾고 싶은 장소 중의 하나로 꼽히는 한옥마을이 정겹게 여러분들을 맞이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회 전, 후의 시간에 한옥마을도 걸어 보시면서 옛 도시의 한가로움도 만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즐거움 속에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 학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시는 여러분들의 즐거운 발걸음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29일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회장 **최 하 영**

